

공동체 소식



주님 부활 대축일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경축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넘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며, 믿는 모든 이들의 희망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시기’ 안내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
까지 50일간)

- 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
- 신앙의 신비어: ‘다’ 양식

‘성주간 전례’와 ‘부활 대축일’ 준비에 애써주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첫영성체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바랍
니다.

- 대상:
김로즈 로즈 (김지혜 수산나의 녀),
박경민 다니엘 (박동희안나의 자),
김정빈 바오로, 김정훈 로베르토 (장보혜 프란체스카의 자)

부활대축일 애찬 봉사는 ‘행사 2조’입니다.

※ 애찬조가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본인 해당조에 대한
확인 바랍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후 성체조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36	134	175	130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부활절)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 주	부활대축일 - 행사 2조
차 주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3/25	49 명	286 달러	1,390 달러
김병철, 김호원, 박동희, 정석원, 정연숙, 박재천, 탁지완, 홍순익 (총 8세대)			

주님 부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8년 4월 1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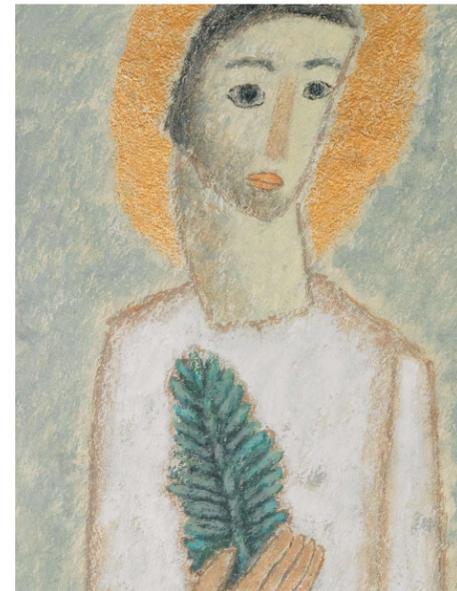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
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벅찬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림 묵상

승리하신 그리스도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요한 20,1)

우리를 위해 수난하고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아침 성무일도는 그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덤에 갇히셨던 우
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키었건만 장엄한 광채속에 개선하시어 죽음
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7-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화 답 송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생명의 말씀

그들이 이미 고통져 있었다 (마르 16,4)



한지년 대림절에 한국 교회는 ‘낙태법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이를 주관하는 분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었고 ‘너무 무모하지 않은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를 방문하고 귀국하니,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낭보(朗報)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걸 엄청난 기적이야...”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난 사순절 내내 저는 자주 오늘 복음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 내 줄까요?’ 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마르 16,3-4 참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아무런 힘이 없는 지극히 나약한 태아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죽음의 한계 안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보다 더 강한 참 생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전대미문의 새로움이요. 기쁜소식(福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신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전승에서 바오로 사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이들의 부활을 먼저 전제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1코린 15,13.16)

플라톤의 ‘영혼 불멸’이나 드라마, 영화에 자주 나오는 환생(re-incarnation)설이 어쩌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향한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과 희망을 표현한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이해(前理解)라고 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대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실현 불가

능해 보일지라도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기에!’, ‘비록 어렵지만 해야만 된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의 울림 때문에 행동으로 나서는 경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살려는 분들의 생(生)의 긍정과생명의 도약(Élan vital) 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은 근원적으로 ‘욕구의 종점은 선(善)이다’(성 아우구스티노)라는 통찰처럼 인간의 선성(善性)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는 우리 인간성 안에 깊이 내재해 있는 사랑의 힘을 솟구치게 하고 비록 자신의 한계와 무력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로마 4,18) 부활 신앙과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안에서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당신 외 아드님의 전적인 순종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응답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며 이분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온 인류와 세상 안에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하며 그분과 하나됨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 구요비 욘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프라 안젤리코의 ‘부활한 그리스도와 무덤앞의 여인들’

말씀의 이삭

나의 부활과 구원

저희 둘째 아이는 아프습니다. 생후 육 개월 되던 해 2월, 제주도에 여행 갔다 숙소에서 아이가 갑자기 떨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추워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경련은 주기적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난치성 질한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밤낮으로 우는 아내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이가 어리니까 금방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만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보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하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렇게시간이 흘러 지금은 다섯 살이 된 둘째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동안 아이가 아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스스로 많이 다독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너진 건 저였습니다. 회사 파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올림픽대로로 접어든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 왔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겨우 차를 몰아 출근하긴 했지만 그 후로 몇 달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잠은 물론 잘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가끔 머리를 쳐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발적 발작성 불안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다락방에 올라가 소리치며 울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잔을 제 앞에서 거두어가시라고. 그렇게 울다가 원망하는 것도 지쳐가던 제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비오야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봐 주고 사랑해주면 좋겠구나.’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내 계획대로 자라주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선과 마음을 느꼈을 둘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저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 순간 부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 나를 옹아매고 있는 욕망과 판단과 계획과 기대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게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은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 이상호 비오 | KBS 아나운서

교리상식



교리도 어려운데 사회교리라니요?

가톨릭교회가 중대한 사회 문제에 응답한 최초의 문헌은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이 반포한 회칙 ‘새로운 사태’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는 현실 사회에 대한 사회교리를 교회의 가르침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엄중 경고해 왔지요. 이렇게 볼 때 사회교리는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그냥 의무로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실천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